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자주적인 실천운동입니다.

올바른 주거정책 수립을 위한 대안을 모색합니다.

고통받는 무주택서민들의 주거권 쟁취를 위해 연대합니다.


| 교육자료집 1. 삶의 자리 |
| --- |
| 주거연합 정책실, 도시빈민연구소 엮음 |
| 발 행 일 : 1992년 7월 1일 |
| 발 행 처 :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
| 주 소 : 서울 용산구 동자동 14-112 세왕빌딩 401호 |
| 연 락 처 : 773-3158, 773-7356 |


ESd.c.1

교육자료집 1

# 삶의 자리

주거연합 정책실, 도시빈민 연구소 엮음

1992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 집의 노래
-무주택자의 날에 부쳐

김 남 주

어제 나는 신림동 어디에 사는
고향 친구 아들의 돌잔치에 갔다
친구 마누라는 국민학교 오학년 때
나와 한반이었던 그 여자아이였다
눈 밑에 점이 있어 동네 아낙들이
이름 대신 점백이라 불렀던 그녀는
역시 나와 한반이었던 내 친구와
단칸셋방에서 살고 있었다

잔치가 끝나고 나는 제약회사에 나간다는
친구의 친구가 권하는 승용차를 물리치고
셋방살이 친구와 옷가게를 찾았다
아버지를 따라나선 친구의 큰아들은 일곱 살이라 했다
가게를 나와서 친구와 헤어지고 나는
전철역으로 무거운 발길을 옮기면서
옛 동요 하나를 떠올렸다
학교가 파하면 동무들과 어깨동무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르고는 했던 노래 —

눈을 감아도 찾아갈 수 있는 우리집
목소리만 듣고도 난 줄 알고 얼른 나와
문을 열어주는 우리집
조그만 들창으로 온 하늘이 다 내다뵈는 우리집

교육자료집 1

# 삶의 자리

주거연합 정책실, 도시빈민 연구소 엮음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 교육자료집을 펴내면서

84년도 목동을 기점으로 불붙기 시작한 생존권보장과 철거반대투쟁은 수많은 개발지역의 철거민들을 투쟁의 대열에 나서게 하였습니다. 특히 철거반대투쟁은 지속적인 투쟁과 그에 따른 성과들이 축적되면서 질적 발전을 가져와 도시빈민운동을 양적으로 확산시켜 내었고 민족민주운동의 중요한 구심체로까지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80년도 철거반대투쟁이 갖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각 지역이나 주민들의 가열찬 투쟁의지 만큼 각 지역 세대위 조직이 탄탄하지 못한점과 투쟁의 종료와 함께 와해내지는 뿔뿔히 흩어짐으로써 이후 새로운 생존권 관련 투쟁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되는 안타까운 현실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주 요인은 바로 대중적인 투쟁의지는 향상되고 있는 반면, 주민 각 개인의 의식적인 뒤받침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생존권을 확보하는데만 급급한 나머지 투쟁만을 최우선시 하는 다소 경직된 사고가 나름대로 깔려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나 건설재벌들의 엄청난 물리력에 의한 탄압과 위협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투쟁은 다음에 닥쳐올 여러가지 어려운 점에도 과감히 떨쳐 일어 날 수 있는 의식적인 교양도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생존권 투쟁이 갖는 이해타산적인 부분과 지역 이기주의적인 습성은 정부나 건설재벌의 선심용 주거대책에 일시에 함몰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각 개인의 의식적인 단련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러한 위험요소는 항상적으로 뒤따르게 됩니다. 물론 철거현장에서 주어지는 급박성 때문에 주민 스스로가 자신을 돌이켜 볼 여유도 없이 매일 매일의 투쟁현장에 서야하는 현실은 누구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철거투쟁이 새로운 지역운동으로 자리매김 하기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주민교육과 투쟁이 잘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교육자료집은 이런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되었으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조금은 빈약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점은 앞으로 계속 보완하여 다음에 제작될 자료집에서 충분하게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의 구성은 지역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사회, 정치문제, 그리고 그간의 철거투쟁이 지나온 역사속에서의 이루어 낸 성과물, 철거투쟁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법률적인 상식등을 보론으로 묶어 제작하였습니다. 자료집이 실제 지역에서 주민들의 활동에 보탬이 되고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주거연합 정책실, 도시빈민 연구소

# 삶의 자리 1 / 차 례

□ 자료집을 펴내면서 / 4

첫째 마당 : 철거투쟁의 역사 ——— 9

1. 철거투쟁의 의의와 배경 / 11
2. 철거투쟁의 과정 / 18
3. 철거투쟁의 성과물 /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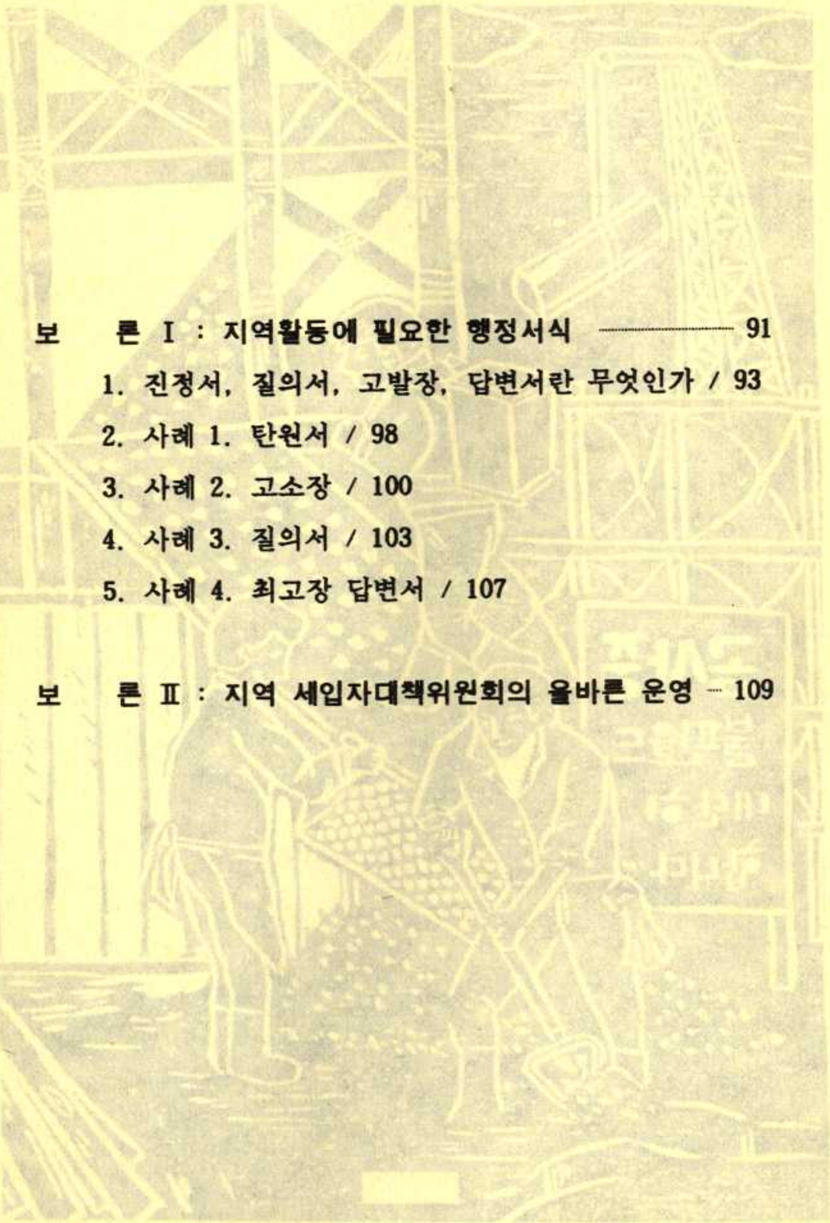
둘째 마당 : 조직이란 무엇인가 ——— 43

1. 조직이란 무엇인가 / 45
2. 조직의 필요성 / 51
3. 조직 운영 / 55

셋째 마당 : 품성이란 무엇인가 ——— 65

1. 조직활동은 올바른 품성으로부터 시작한다 / 67
2. 지녀야 할 품성의 유형 / 69
3. 조직원으로써 지녀야 할 품성 / 75
4.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와 임무 /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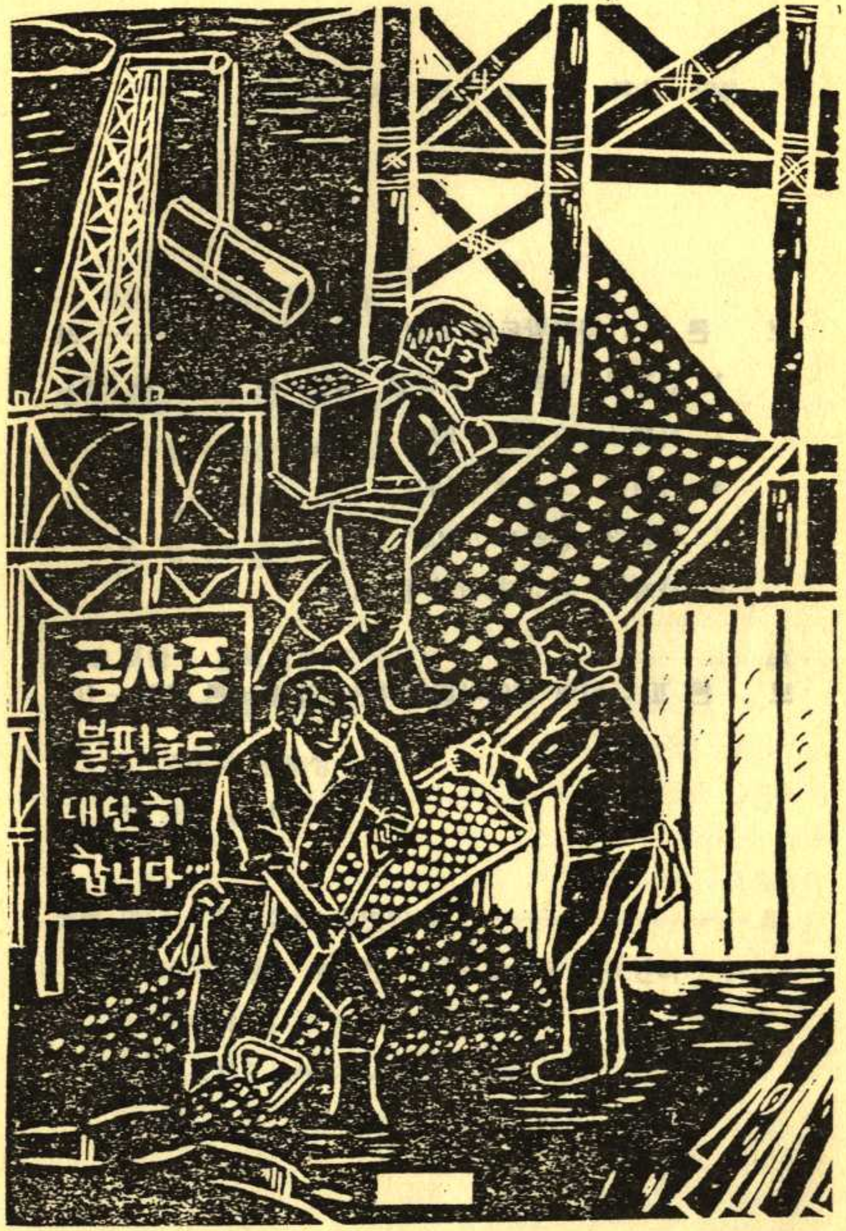




보 론 Ⅰ : 지역활동에 필요한 행정서식 ———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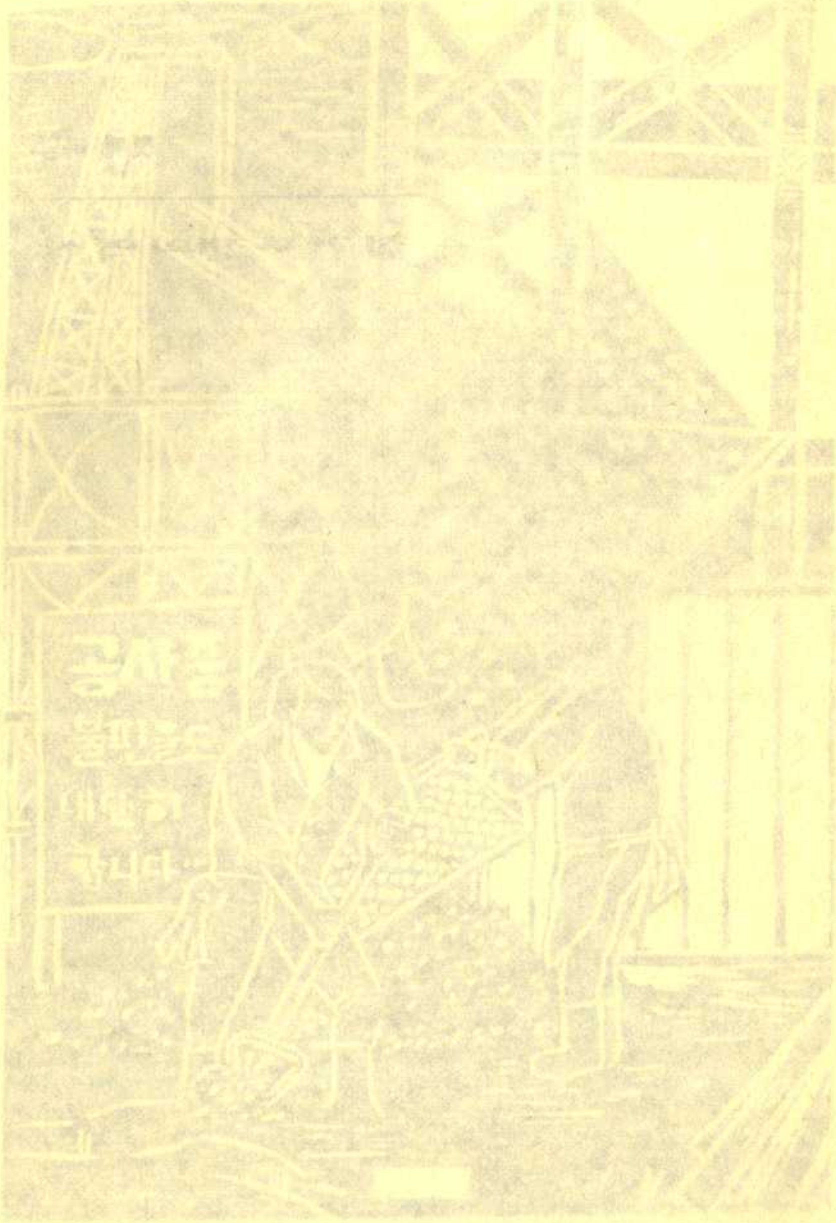
1. 진정서, 질의서, 고발장, 답변서란 무엇인가 / 93
2. 사례 1. 탄원서 / 98
3. 사례 2. 고소장 / 100
4. 사례 3. 질의서 / 103
5. 사례 4. 최고장 답변서 / 107

보 론 Ⅱ : 지역 세입자대책위원회의 올바른 운영 — 109




첫째 마당

# 철거투쟁의 역사





## 1. 철거투쟁의 의의와 배경

철거로 인하여 우리 도시빈민이 당해야 했던 고통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리 몰리고 저리 쫓기며 살아온 과정이 바로 우리 도시빈민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볼때는 별개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고 수십년 동안을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 같은 숱한 철거지역의 주민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피나는 투쟁을 벌여왔고 그에 따른 상당한 성과를 쟁취하여 왔습니다.

이런 투쟁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철거투쟁의 과정을 되돌아 보는것은 앞으로 우리의 철거투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하는데, 그리고 완전한 생존권의 권익을 보장받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철거투쟁이 전개되어 오면서 각 지역별로는 어떤 특수한 문제가 있었는가, 또한 대응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들을 취해왔던가, 나아가 투쟁과정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 무엇이 있었는가를 다시금 정리해 보는 것이야말로 현재 지역에서 안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산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새롭게 점검해 봄으로써 선배지역의 잘된점은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점은 올바르게 보완하여 이후 우리가 벌려나가는 싸움에서는 다시금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고 승리로 한걸음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선 철거투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던 배경은 어떠했으며, 또한 철거투쟁은 왜 그렇게 가열차게 일어났고, 사회적인 여론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오르 내릴 수 밖에 없었던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거의 역사는 멀리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사건이 '광주대단지 사건'이었는데, 정부는 60년대부터 추진된 공업화 정책을 보다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주민들이 살고 있던 그 자리에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약 2만세대 12만명의 주민을 무작정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이에 생계가 막막해진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였고, 급기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주민 모두가 투쟁에 참여하여 계획 자체를 대폭 수정하게 하였습니다. 이 결과 정부는 주민들에게 대토를 마련하여 집단이주시키게 되었고 투쟁의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옮긴 지역이 오늘날의 성남시입니다. 물론 당시 상황으로 볼때 대토를 얻은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지만 주변생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상당한 불편을 주민들은 겪어야했습니다. 서울이 생활의 근거지였던 대부분의 주민들은 허허벌판이었던 광주에서 살길이 막막하여지자 다시금 투쟁에 떨쳐 일어섰고 또다른 여러 성과들을 획득하면서 점차 사람사는 동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주대단지 사건이 갖는 나름대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투쟁 자체가 매우 폭발적이었지만 강력한 지도부가 구성되지 못해 단발적인 투쟁이었다는 점과 투쟁의 소중한 경험들을 다른 지역의 철거민에게 전해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광주대단지 사건이 갖는 의미는 오늘날에 있어서 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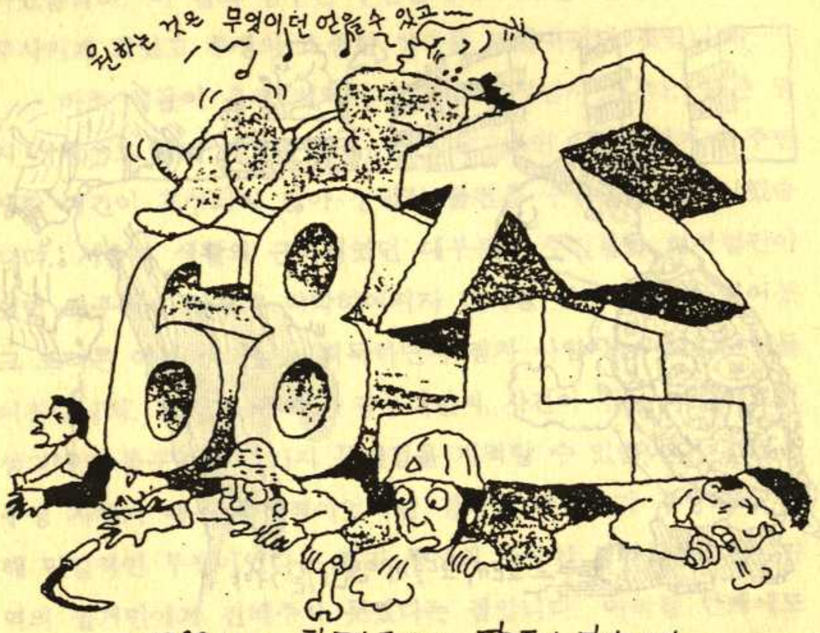




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것은 사실입니다.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을 외곽지역으로 밀어내는 개발정책은 계속 확대되어 청계천, 양평동, 한남동 등에서 수많은 지역의 철거민들을 양산해 냈고, 다양한 형태의 집단이주 단지등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철거때마다 간헐적인 철거반대투쟁은 있어 왔으면서도 이렇다할 성과는 남기지 못한 채 거의 대부분의 철거된 지역이 서울의 외곽지역으로 밀려나면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 제3공화국 - 는 오늘날처럼 무지막지하게 주민들을 길거리로 내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서울 외곽지역에 최소한의 근거지는 마련하여 이주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다 제5공화국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들 철거민은 다시금 길거리로 나가 싸울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호황이던 해외 건설경기가 - 주로 석유 산유국인 중동쪽으로 많이 나가 있었음 - 중동지역의 잦은 전쟁으로 인하여 하향세를 타기 시작했고, 이로인해 많은 건설업체들이 국내로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대안이 바로 "재개발"이었습니다. 물론 가진 사람들이 살고있는 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우리처럼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산동네, 뚝방동네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재개발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도 한해동안의 땅투기 자본이익-





그 이유는 산동네, 뚝방동네가 주거지로서는 불량하고 주거환경도 열악하여 도시미관상 좋지않다는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명분에 불과한 것이였고, 서울 도심에서 밀려와 허허벌판이었던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면서 땅값이 올라간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하루벌어 하루를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에 맞는 집은 이런 산동네, 뚝방동네가 아니고는 서울의 어느 곳을 찾아 보아도 단 한곳도 없습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주택비가 저렴하게 들어감으로써 당장 생활적으로 받는 압박이 적을 뿐더러, 아동교육에 있어서도 같은 형편의 사람들이 모여 살기때문에 차별성이 별로 생기지 않아 아동 스스로도 열등감에 빠질 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이웃이 대부분 한 울타리 속에서 살기때문에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닐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급전이 필요할 때도 바로 둘려 쓸 수가 있고, 이웃이 좋은 일이나 궂은 일을 당했어도 함께 풀 수 있는 여건이 자연스럽게 조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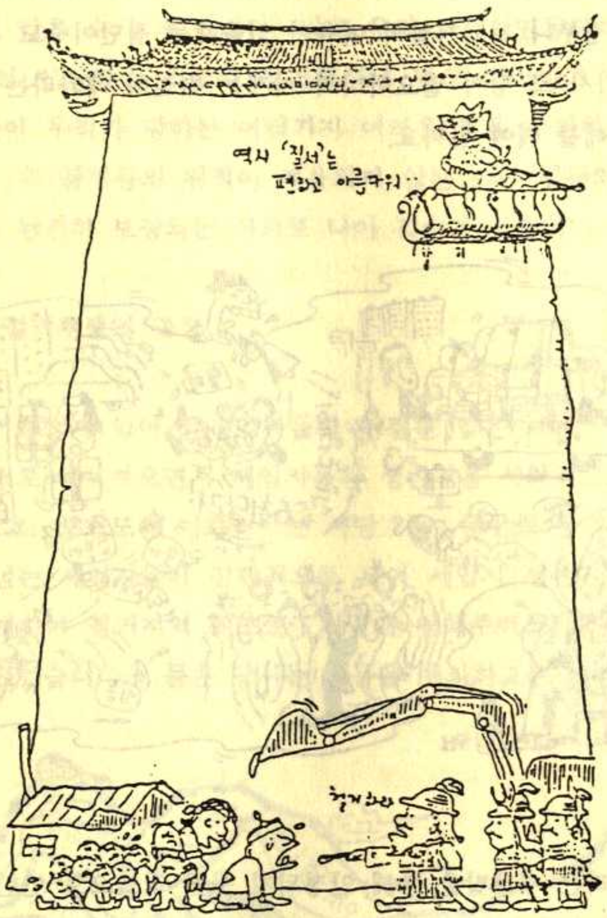
그러나 가령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을 때는 여러가지로 받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이웃과의 따스한 정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외로움과 자기 가족만의 개인주의적 경향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 대부분이 어려운 형편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활면에서 오는 차이점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더우기 아이들이 받는 열등의식은 부모로서는 참기 어려운 고통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지극히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달동네는 아직까지도 농촌 출신들이 대부분이라 농촌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재개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막대한 개발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개발을 통해 정부와 건설업체는 상부상조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대부분의 달동네 땅은 국유지나 시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노는 땅을 건설업체에 팔아서 엄청난 이익금을 남기게 되고, 아파트가 지어진 후는 막대한 세금을 거둬 들여 꿩먹고 알먹는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업체는 땅을 매입할 때 일시불로 지불하는 부담을 안지 않아도 되고, 나아가 싼값으로 땅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초기부터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면 거기서 또한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더군다나 국민주택 기금에서 싼 저리로 특혜융자를 받아 공사를 하게되니, 완전히 손 안대고 코푸는 격입니다. 바로 건설업체 자체의 자금은 거의 들어가지 않고서도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개발 사업은 정권와 재벌 건설업체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철거시 조합에서 고용한 철거깡패와 공권력이 종횡무진으로 판을 치고 있고, 복부인, 투기꾼, 부동산업자들의 농간 또한 우리같은 가난한 빈민들을 곤궁에 빠트리며, 땀흘려 노동하지 않고도 손쉽게 돈벌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투기꾼, 복부인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바로 불로소득의 원천을 제공하고, 주택가격을 폭등시키며, 전월세값을 앙등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싼 값으로 거래되었던 집이 하루 아침에 치솟아 집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고 가난한 세입자는 결국 그 등살에 오갈데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재개발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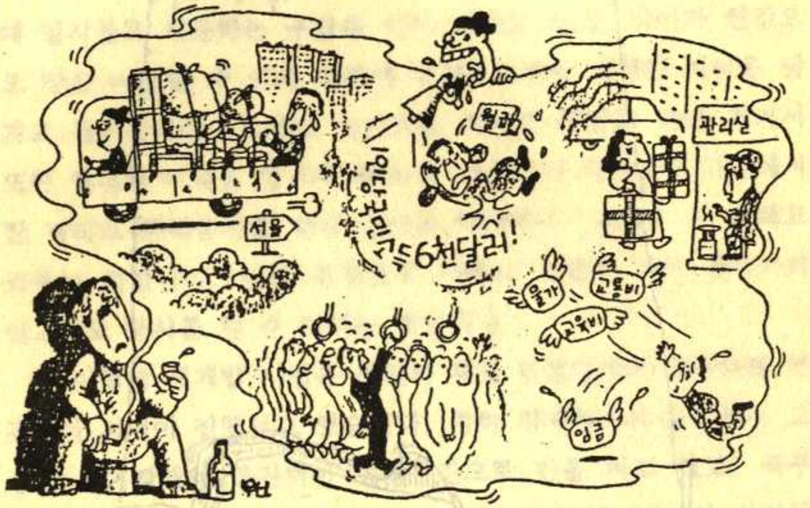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는 막무가내로 당하는 입장에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세입자에게도 분명히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될 때까지는 우리도 지금까지 형편 닿는 한 열심히 제 몫을 해왔습니다.

공장에서, 거리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나라를 위해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이란 세금은 다 내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가진자들이 여유가 있을때는 집단이주도 시켜주었다가, 다시 그 땅이 필요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내놔라는 식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재개발을 통해 안정되지 못한 직업으로 인한 저임금 구조때문에 주거조건이 열악한 곳에서 살고 있는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러한 생활근거지마저 빼앗겨 오갈데 없이 떠돌게 되는 이중적 수난을 겪어야 합니다. 즉 도시빈민은 노동할 수 있는 힘(노동력)을 새로 충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근거지마저 박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철거당할지도 모르는 무허가 불량거주 지역의 과밀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는





데도 철거로 인해 주변의 집값은 자꾸 뛰기때문에 도시빈민 세입자은 필연적으로 철거반대, 지역을 지켜내기 위한 집단적 투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우리 도시빈민들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과감히 철거투쟁에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때만이 우리가 당하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 즉 불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인간 평등의 사회, 생존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 갈수가 있습니다.

## 2. 철거투쟁의 과정

철거투쟁에 있어서 세입자들의 단결된 힘은 목동, 상계동, 사당3동으로 이어져오면서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사회적으로 계속 제기하였고, 88년도에 이르러서는 사당 2동, 돈암동 등 약 3,000세대가 넘는 세입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세입자 생존권 쟁취투쟁을 전개하여 철거지역 최초로 "지역내 임대주택 쟁취"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는 목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이 합동재개발 지역으로 세입자 대책도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수많은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철거싸움에 뛰어들지 않을수가 없게 만들었고, 여론 또한 새로운 시각에서 철거투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철거싸움은 수많은 지역의 철거민들이 생사를 거는 피나는 투쟁의 결실로 오늘의 철거민 대책이 마련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철거민 스스로가 일어서 오늘날의 '서울시철거민 협의회' 나 '주거연합'을 태동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철거민 운동이 도시빈민운동으로 자리잡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투쟁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수 있는 몇 몇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투쟁의 과정과 성과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개발을 중심으로 본 목동철거투쟁

### (ㄱ) 형성과정과 철거배경

1963년 경기도 김포군 양동면 신정리, 목동리에서 영등포구(현재는 강서구)로 편입되었고, 당시 목1,2,3동과 신정1,2,3,4동 등 7개동으로 총 20여만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군사정권은 63년 10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무허가건물 정리 5개년 계획"을 세워 64년 이태원, 이촌동, 숭인동, 대신동, 대방동 등지의 판자촌 철거민 상당수가 밥그릇, 숫가락, 판자조각을 짊어지고 시청 청소차에 실려 이 지역으로 쫓겨왔습니다. 그리고 68년 여의도 비행장 주변지역에 살던 영세상인들이 다시 이 지역으로 몰려 왔습니다. 70년대 이후에는 청계천, 중랑천변에서 철거민들이 합세하여 당시의 목동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다 83년 4월에 신시가지계획 발표가 있었고, 그 전에 이미 50만평이 유명회사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 (ㄴ) 개발형태와 건설규모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여 토지를 모두 시에서 매입한 후 전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가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택의 규모에 있어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고, 대량의 장기 임대주택을 포함한 중산층 이하 시민의 기호에 맞게 10-60평 규모로 다양하게 건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택지를 조성, 민간업체가 건설하고 분양은 서울시가 직접 담당하는 형태. 토지매입시 보상가도 국세청 고시 기준가나 내무부 고시가보다 평당 15만원 높은선으로 하겠다고 장담하였습니다. 그 외에 무허가건물 2,600 가구를 철거하고, 가옥주에게는 아파트 입주권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임대아파트 10,000여 가구분을 건설하여 장기간의 계약조건과 싼값에 분양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1983. 4.11)

### (ㄷ) 투쟁과정

1 기 【83.4.11-84.8.26】 이 시기는 통,반장이 중심이 된 관제형식의 주민조직이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로 복덕방과 복부인들의 활동이 왕성했으며 개발의 단기적 이익에 대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집단행동을 감시,저지시키는 데 촛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다 실제적인 주민조직으로 넘어오면서 천주교회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여 보다 구체적인 요구를 하였습니다.

2 기 【84.8.26-84.12.1】 이 시기는 추진위원회에서 대책

위원회로 바뀌게 되었으며 목동문제를 전사회화시켜 내기로 결정하여 투쟁이 전개된 시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옥주와 세입자들의 입장의 차이에서 분열이 발생하였으며, 구청과 지역을 중심으로 격렬한 항의시위가 발발하여 많은 주민들이 연행, 구금되기도 하였습니다. 더우기 수해까지 겹쳐 피해를 막대하게 입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입자대책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주민 의사는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하여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이 시기는 12대 국회의원선거 시기와 맞물려 있었고, 분열과 재통합등의 수난이 겹친 시기였습니다.

3 기 【84.12.1-85.2.25】 이 시기는 시위의 형태가 내부에서 외부로 옮겨가는 때였습니다. 특히 서울시 당국과 직접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한 때이기도 합니다. 시위의 양상도 서울시청앞 시위, 유세장 시위, 민한당사 농성등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사저지로 주민의 구속사태가 발발한 때이기도 합니다. 요구사항도 막연히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게 되었습니다.

4 기 【85.2.25- 85.4】 이 시기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의가 승리를 하는 때이기도 하여 어느정도 기대를 걸었던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자행되는 강제철거에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때도 3기와 비슷하게 시위가 외부에서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신민당사 농성, 부구청장 감금사건과 현장사무소 방화사건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외부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종교계를 중심으로 기도회등이 개최되어 목동지역에 대한 대국민 홍보선전을 펼쳐나갔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목동개발을 통해 정부가 1조원의 개발이익을 남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적잖이 사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 합동 재개발을 중심으로 본 철거투쟁

86년에 접어들면서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합동재개발 방식은 수많은 지역의 철거민들을 위협하였습니다. 상계동, 사당3동, 신당6동, 창신동, 양평동 등에서 거의 모든 지역의 세입자들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에 세입자들도 그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고 정당한 자기 권리로써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떨쳐 일어나 힘차게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물론 그 영향은 목동의 철거투쟁 경험이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의 투쟁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86년 당시 가장 핵심적으로 투쟁이 전개되었던 상계동과 사당3동을 비교하고, 88년에 들어오면서 는 가장 활발하게 투쟁을 이끌었고, 영구임대주택 쟁취라는 커다란 성과를 남겼던 돈암동과 더불어 사당2동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서, 지난한 투쟁과정을 통해 얻어진 성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상계동, 사당3동 철거투쟁을 중심으로

| 구 분 | 상 계 동 | 사 당 3 동 |
|---|---|---|
| (1)「세대위」건설 | 1986년 3월 25일 | 1985년 4월 4일 |
| (2)세입자 수 | 520세대 | 1,052세대 |
| (3)철거투쟁방법 | 지역을 지켜내며 투쟁 (방어적 입장) | 외부농성 및 항의시위 (공격적 입장) |
| (4)투쟁구호및요구 | 재개발법 철폐, 생존권 보장 | 재개발법 철폐, 생존권 보장 |
| (5)세입자대책 | 법적근거는 전혀 마련되지 않고 조합측으로부터 약간의 이사비 | 법적근거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조합측으로부터 약간의 이사비 |
| (6) 투쟁성과 | 2개월 생계대책비 보장 (5인가족 852,700원) | 공특법에 따른 세입자 특별분양권 보장 |
| (7)주민보상수준 | 2개월 생계대책비로 약 100만원 정도 보상받음 | 특별분양권 딱지를 340만원에 전매, 보상책 |
| (8)투쟁기간과주요 사건 | 1년 (87년4월14일) | 2년6개월(87년10월19일) |
| | 86.3.24 상계성당 200여명 참석 주민 모임 | 85.6.11 민정당 허청원 의원, 신민당사 방문무산 |





| 구 분 | 상 계 동 | 사 당 3 동 |
|---|---|---|
| | 4. 7 추진위 농성 (400여명)<br>4.17 폭력으로 어용 세대위 출몰<br>5.16 남성열씨 원인를 사망<br>5.30 추진위 사주 포천이주 결정<br>6.13 대학생지원시위<br>6.14 김수환추기경내방<br>6.26 폭력, 살인, 강제철거자행<br>6.27 도봉구청 농성<br>7. 3 강제철거 저지<br>8. 3 대학생 400여명 상계역시위<br>8.29 구청지원천막 탈취 사건<br>10.12/13 폭력철거 자행<br>11.4/6 강제철거저지<br>87.4.14 완전철거 명동성당 이주<br>5. 4 오동근(9세) 사망<br>5.6 오동근시신 탈취<br>8. 88세대 양분 | 6.14 동사무소 방문, 구청장 면담 주선 요청<br>6.22 구청장 면담<br>6.25 허청일의원방문<br>7.27 YMCA방문 호소<br>8.6/8 시청민원실방문<br>8.12/9.26구청, 시청방문<br>10.29 100여명 시청앞에서 시위<br>11. 4 80여명 동회앞에서 시위<br>11. 8 대책위 소강상태<br>87.9.2 강제철거 자행<br>9. 3 100여명 도로 및 동사무소 시위<br>9.10 민정당사 앞 시위<br>10. 4 한가위 도시빈민 대동제<br>10.13/14 폭력철거 자행<br>10.19 폭력철거규탄대회 이후 지역정리 |

| 구 분 | 상 계 동 | 사 당 3 동 |
|---|---|---|
| (9) 투쟁 이후 | 3개의 공동체마을 형성(포천동교리, 고강동, 남양주군) 남양주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동체는 개별적, 집단적으로 해체 | 모든 주민들은 뿔뿔히 흩어지고 10여세대 주민만 봉천동으로 이주하여 「봉천동 일용건설노동조합」을 건설하여 활동 중 |
| (10)영향받은 단체 | 천주교의 영향 | 학생운동출신의 영향 |

## 2. 사당2동, 돈암동 철거투쟁을 중심으로

| 구 분 | 돈 암 동 | 사 당 2 동 |
|---|---|---|
| (1)「세대위」건설 | 1988년 4월 16일 | 1987년 8월 16일 |
| (2)세입자 수 | 약 2,000세대 | 약 2,300세대 |
| (3)철거투쟁 방법 | 지역방어, 지역연대 | 지역방어, 학생연대 |
| (4)조직운영 방식 | 통모임을 통한 교육 및 주민총회시 지역 투쟁 경험자 초청 강연, 상황에 따라 구청, 조합, 경찰서 농성, 후반기는 전선사업 치중. 단합대회, 지역대회, 문화제등으로 지역활성화 꾀함. | 주민총회를 활성화시켜 주민 교육장으로 활용, 상황에 따라 동사무소, 구청, 경찰서, 조합등에서 농성전개, 후반기는 학생과 연대 지역대회를 통한 활성화, 농성을 통한 투쟁경험 축적 |
| (5)투쟁구호및요구 | 서민주택, 임대주택 | 임대주택 |
| (6)세입자 대책 | 특별분양권 방1칸이나 생계대책비 중 택일 | 특별분양권 방1칸이나 생계대책비 중 택일 |
| (7)투쟁성과및 주민 보상 수준 | 「영구임대주택 쟁취」 해당자의 경우는 특별분양권 딱지 700여만원 정도 전매보상. 미해당자의 경우와 해당자중딱지 포기자는「영구임대주택」보상 | 해당자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조합측과 분양권딱지 가격으로 1,300만원으로 보상 마련. |

| 구 분 | 돈 암 동 | 사 당 2 동 |
|---|---|---|
| (8)투쟁기간과주요 사건 | 2년 ( 90년 4월 14일 ) 현재까지 가이주단지 입주 후,75세대 투쟁전개 | 2년여 소요(1989년 말 주민 뿔뿔히 흩어짐 |
| | 88.4.16/6.4 통모임교육<br>5.7/16 조합사무실농성<br>6. 5 도시빈민생존권및 서민주택쟁취대회 (1,300여명)<br>6.29 반민중적 올림픽 탄압받는 도빈생 존권대회300여명<br>6.30 성공회농성 지원<br>7.13 공가철거 항의로 조합농성<br>7.14 성북서 농성<br>8.6/7 대동한마당<br>8.10 반대파 척결<br>89.2.2/15 강제철거자행<br>2.22 고 정상률열사 장례식<br>6.8/10.9 청장년부의 자진철거<br>11.14 강제철거 자행<br>90.4.10 영구임대주택 쟁취<br>7.13 가이주단지 조성 | 88. 1. 8 임채의 어린이 장례식<br>1.21 민정당사 농성 (300여명)<br>6.14 동작구청 점거 (600여명)<br>6.28 국회앞과 평민당 사 농성<br>7.15 구청 철야농성<br>8.16 투쟁1주년 기념<br>11.1/4 동작구청 농성<br>11.5/6 살인적 강제철거 자행<br>88.11.7/18 학생과 연대 투쟁기간<br>89. 4.11 세대위 지도부 조합측과 1,300 만원 합의<br>4. 3 신집행부 구성<br>5.30 경찰의 공가철거 자행<br>6.20 이혜영(4세)사고<br>6.28 이혜영 장례식 |





| 구 분 | 돈 암 동 | 사 당 2 동 |
|---|---|---|
| | | 8.11 강제철거 분쇄 투쟁대회<br>89. 8.19 철거반 숙영지 기습 |

### 3. 90년 철거투쟁을 중심으로

90년에 들어오면서 두드러진 현상은 80년 후반에 왕성하던 합동재개발 사업이 조금 주춤하면서 신도시개발과 택지개발, 그리고 주택조합 관련개발 사업들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90년 개발사업의 특징은 80년도의 무작위적인 개발사업 추진에서 조금 후퇴한 일정한 정도의 세입자 보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보상책이 깊이 따져보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불분명한 임대주택이라든가, 임대료의 불확실성 등이 내재된 것들이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이 주어졌던 수서지구의 경우는 보상된 장기임대가 없어지므로써 거의 보상이 불확실하게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합동재개발 지역의 경우는 법적으로 보상된 영구임대주택이 아직도 불확실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다 주택조합의 경우는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아무런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90년 철거투쟁은 이러한 조건 외에도 새롭게 주장되기 시작한 요구가 임시로 거주할 '가이주단지의 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에 대한 정부측의 대책은 각 지역별로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완전한 주거권 확보로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요구와 함께 주장되었던 '공공임대주택 보장'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힘을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90년도 철거투쟁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그 성과면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되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신도시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89년 4월 23일 5개 신도시택지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일산, 분당, 중동지역 등을 중심으로 철거투쟁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은 지주나 가옥주 중심으로 조직화가 이루어졌지만 이내 정부나 시행처의 충분한 보상책이 뒤따르면서 거의 대부분의 지부와 가옥주 조직은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는 문제는 세입자들의 대한 주거대책이었지만 그렇다할 보상책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투쟁은 하루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어 갔습니다. 여기서는 각 지역별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못하여 분당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당, 방화택지개발지구

| 구 분 | 분 당 | 방 화 지 구 |
|---|---|---|
| (1)「세대위」건설 | 1989년 5월 9일 | 199년 7월 7일 |
| (2)세입자 수 | 2,500세대 | 350세대 |
| (3)철거투쟁 방법 | 지역방어와 규탄시위 성남 민민운동과 연대 | 지역방어와 항의 농성 지역간 연대 중심 |
| (4)세대위 운영 | 집회를 통한 주민 투쟁력 강화 | 지역단합대회와 농성 |
| (5)투쟁구호 및 요구 | 주공임대주택, 가이주단지 조성 | 임대주택 13평 명확화, 가이주단지 조성 |
| (6)세입자 대책 | 장기임대아파트 분양권 이주대책비 180만원 중 택일 | 임대아파트 13평이하 입주권, 3개월 주거대책비 중 택일 |
| (7)투쟁성과 및 보상 수준 | ① 주공 장기임대아파트 입주권 ② 상가 2평 분양 ③ 가이주단지조성 (8평, 150만원 지원) | ① 가이주단지 조성 ② 공공임대 13평 |
| (8)투쟁기간과 주요사건 | 2년, 91년 9월 17일 가이주단지 입주 이후, 계속 투쟁 중 | 1년 6개월, 91년1월11일 가이주단지 입주 이후, 계속 투쟁중 |





| 구 분 | 분 당 | 방 화 지 구 |
|---|---|---|
| | 90.6.11 토개공 성남사업단 규탄시위 (1,800여명)<br>6.12 성남시청 규탄시위(500명)<br>6.13 성남시청, 모란시장 500여명 기습시위, 100여명연행<br>6.19/23 강제철거 항의 자녀등교거부투쟁<br>6. 보상책 발표 후 2,200세대 나감<br>91.5.21 야탑 강제철거<br>5.31 성남시청 농성<br>6. 1 성남시와 가이주단지 협상<br>6.14 성남, 용인 주거권 쟁취대회<br>9.17 가이주단지 입주식 (71세대) | 90.7.28 철거용역 공가철거<br>7.29 현판식 및 가두행진<br>8. 19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주거권쟁취대회'<br>9. 12 방화지구 양분<br>9. 21 주민 단합대회<br>11.2 방화지구 재통합논의 무산<br>12.13 도시개발공사농성연행됨<br>12.25 민자당 남재희 사무실 농성<br>91.1.12 서부지역 주거권 쟁취대회<br>1.14/15 지하철공사항의 방문<br>4.26 도개공 가수용시설 통보<br>92.1.11 가이주단지 입촌 (126세대) |

## 3. 철거투쟁의 성과물

### 1) 85년 목동투쟁의 세입자 보상

제1안 : 정상세대에 한하여 임대아파트 20평형 방 1칸에 대한 입주권을 부여한다.

제2안 : 이주보증금을 정상세대에 30만원을 지급하고 가족수 1인당 50만원을 추가지급 하되 50만원은 초과하지 않는다. 비세대는 균등하게 20만원을 지급한다.

제3안 :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전출보조 70만원, 정착지원 60만원, 생업자금융자 200만원의 보조를 한다.

제4안 : 주민들 자력으로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여 단지 조성할시 주택자금융자 및 행정지원을 한다.

### 2) 2개월 주거대책비 보상

합동재개발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목동지역의 세입자들에게 주어졌던 보상책이 합동재개발 지역 세입자에게는 전혀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87년 1월경에 5인가족 기준으로 825,700원의 주거대책비가 공식적으로 86년 상계동, 양평동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보상되었습니다. 이는 초창기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쟁을 통한 귀중한 성과물이었습니다.

### 3) 2개월 주거대책비나 특별분양권 방1칸 중 택일 보상

2개월 주거대책비 만의 지급에서 조금 나은 조건의 특별분양권 방1칸(일명 딱지)을 추가하여 그 중 양자택일 하게 만든 것은 새로운 보상대책이었습니다. 특별분양권은 공특법(87년 11월 29일 개정)에 적용을 받았고, 그것의 내용은 개발지역 내에 건립되는 아파트 중 24평형을 3세대가 8평씩 나누어 방1칸, 부엌 1칸씩을 분양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주시 8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유형의 아파트는 애초부터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2개월 주거대책비는 금액면에서 너무 적어 모든 세입자가 도외시되었고, 특별분양권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딱지는 조합측과 합의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거나 각 세입자들 개개인이 부동산 중계업을 통한 전매로 약간의 프레미엄을 받게 되었습니다. 딱지가격은 지역별 특성과 투쟁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창신동은 조합과의 약정 잘못으로 받았던 세대당 약 100만원 정도가 차후 딱지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당 6동은 조합측과 280만원으로 정리하였고, 사당 3동은 마지

막 남은 세입자에게 340만원씩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격은 처음 거래시는 매우 낮은 금액으로 팔고 나간 세입자가 대부분이고, 최후까지 싸운 세입자는 그 지역에서의 보상액중 상당히 좋은 조건 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투쟁을 경험한 지역의 보상사례 등은 이후 지역으로 이전되면서 보다 나은 보상조건을 따내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분양권은 사당 2동, 돈암동까지 이어져 사당 2동은 1,300만원을 받았고, 돈암동의 보상해당자는 약 700만원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 4) 영구임대주택 보상

87년 말경부터 각 개발지역은 특별분양권이나 3개월 주거대책비의 보상은 근본적인 주거대책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요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구는 다름아닌 '임대주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 정치적 상황으로 과연 이러한 요구가 확보될 수 있을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따랐습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임대주택의 내용은 보증금 없이 월 2-3만원씩을 20년 정도를 붓고 나면 내집이 될 수 있는 13평형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내용이라면 '서민주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요구가 약간 양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이 갖는 궁극적인 개념은 가난한 저소득층 서민을 위해 기본적으로 국가가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는데 있었습니다. 결국 서민주택이나 임대주택은 시간이 흐르면서 '영구임대주택'으로 단일화 되었고, 89년에 이르러서 돈암동 지역에서 최초로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영구임대주택은 보다 확산되어 하계 2동, 신정 6지구, 노량진 등에서 보상책으로 제시되었





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생보자, 의료부조자,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보상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리지침이 까다롭고 평수는 비좁으면서 가격은 비싸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5) 가이주단지 보상

90년에 들어오면서 전 지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가이주단지 조성 요구는 돈암동(71세대)을 시작으로 홍제동(66세대), 수서 2,3지구(1,000여세대), 일원지구(350세대), 방화1지구(126세대), 방화7통(66세대), 분당(74세대)이 가이주에 입주하여 살고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을 비롯한 신정 6-1,2지구, 하계2지구에서 가열차게 요구되고 있어 이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원래 가이주단지 조성요구가 분출된 것은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야기되는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전월세값의 폭등은 서민생존에 커다란 위협으로 닥아왔고, 지금의 생활형편으로는 도저히 비싼 전월세값을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지역내에 영구임대주택이 건립될때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가이주단지의 보장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쟁취된 가이주단지는 조성 부담을 대부분 세입자 자신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내에 가이주단지가 조성되었다는 점만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당의 경우는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세대당 150만원을 지원받아 건립되었다는 사실은 획기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앞으로 현재의 조건 보다는 더 나은 조건으로 발전되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6) 공공임대주택의 건립

공공임대주택의 건립은 92년에 들어오면서 7차 5개년 주택공급계획에서 공식적으로 정책화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지역이 영구임대주택이나 일반 임대주택으로 보상받아 왔지만, 수많은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아직 건립수나 규모면은 극소수 분량에 불과하지만, 지속적인 요구가 진행되다 보면 점차적으로 물량은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되어 정부정책으로 받아 들여졌다는 데 커다란 투쟁성과였습니다. 이제 개발과 관련된 세입자 보상책도 공공임대주택으로 새롭게 적용을 받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주택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 공공분양주택의 건립

그동안 청약저축예금 가입자들이 무려 150만명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주택공급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가 7차 5개년 기간에 '공공분양주택'을 건립하여 공급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장기임대주택이 민영중심이 많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지금의 공공분양주택은 공공부문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장기나 공공분양은 5년 이상을 임대하여 살다가 이후 분양을 받는 조건입니다. 지금은 장기임대주택의 개념은 없어지고 공공분양주택으로 바뀌어 건립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으로 생활형편에 따라 주택을 택일할 수 있는 조건은 구비되었지만 아직도 청약저축가입자에게만 보상되고 있습니다.





7) 미해당 세입자 보상

지금까지 모든 개발지역을 통틀어 미해당자에 대한 해댁은 전혀 없었습니다. 있다면 간간히 조합측과 합의가 잘되면 약간의 보상금액을 받은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계1동 1113번지에서는 미해당자에게도 대한주택공사 측이 공식적으로 2개월 이주대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타 지역까지는 확산되지 못했지만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래 전입자, 후입자의 구분은 철폐되어야 함에도 계속적으로 분류하여 미보상되기가 일쑤였는데 이것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지역내 세입자중에는 개발과 맞물려 세대를 형편상 어쩔수 없이 분류한다든가, 오갈데가 없어 달동네로 이주해 오다보니 개발과 일치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람들을 위장분류, 위장전입자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전입자, 후입자의 분류는 현실성이 없는 제도로 철폐되어야 합니다.

**이야기 해 봅시다 !**

1. 우리가 지역의 철거싸움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그리고 철거싸움에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얻어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야기 해 봅시다.
2. 철거싸움을 통해 현재 자신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목표들을 쟁취해 내기위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3. 과거 선배지역들이 이룩한 성과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투쟁의 방법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둘째 마당

# 조직이란무엇인가

## 1. 조직이란 무엇인가 ?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가지 복잡하게 얽힌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일들을 풀기 위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문제에 대응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일을 풀때는 어려운 점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몇 사람이 힘을 합하면 의예로 일은 쉽게 풀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바로 이렇게 어떤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 몇사람이 모인 집단을 우리는 흔히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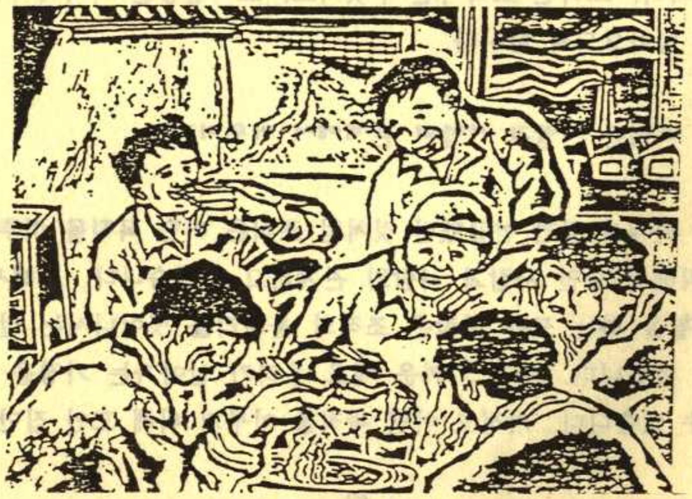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집단과는 관계없이 '독불장군'들이 있습니다. 나 아니면 어떤 일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귀에 거슬리는 남들의 충고는 모두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자기만을 생각하며 자기만 믿고 혼자 힘만으로 살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동료도 없고, 오직 나 혼자 내 일만 하면 된다는 독불장군식 사고는 집단적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러면 조직이란 무엇이고, 조직활동은 어떡해야 하는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 조직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위에서 잠간 언급했던 것처럼 조직은 어떤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모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은 조직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인 집단이라

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정내의 구성원 모두는 어떤 목적(-목표)을 위해 나름대로 결속력을 갖게 됩니다. 자식을 잘키우기 위해 부모들은 그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하게 되고, 현재의 형편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절대 개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그 어떤 규율이 존재하며 움직여 집니다. 즉 부부의 관계, 자식과 자식의 관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등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들이 바로 가정이란 조직으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바로 우리가 접하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의 각 구성원들이 제각기 자기 일만을 중요시하고 나아간다면 그 가정은 어찌되겠습니까.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몫을 해야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몫을 해야하며,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몫을 해야만 그 가정은 화목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는 사회는 혼자만이 산다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가 있고, 지역에서 함께 사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는 동족이 있습니다.







**조직은 어머니의 품과 같아야 한다**

이렇듯 조직이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우선된다고 할때, 모인 집단의 구성원 모두는 서로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조직을 지켜내고 보존하는 임무를 서로간에 부여받게 되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 한 개인에게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에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렇듯 조직에 구성된 모두의 힘이 하나로 모아질때 어렵게만 느껴졌던 일들도 손쉽게 풀어낼 수가 있게 되고, 그 조직은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위험요소는 항상적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분열과 파괴공작입니다.

조금전 가정의 비유에서 부부가 헤어져 살아간다든가 자식들이 뿔뿔히 헤어져 제멋대로 살아간다 할 때 그 가정은 이미 가정이란 조직으로서의 제 몫을 다하고 있다고 못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만든 조직도 사분오열 되었을 때 그것은 조직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듯 조직은 분열을 통한 이탈을 최대한 방지하여야만 우리의 승리는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만들기도 어렵지만 지켜 내는 일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일중에 하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조직의 기본적인 일인 사람의 관계부터 정확히 해야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이성과 감정이 교차하기 때문에 잘 조절하지 않으면 항상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서로간의 인간적인 돈독함, 존경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조직을 이끄는 일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보살피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쏟아야 하고, 나아가 항상 온화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신체 어느 한부분이 다치거나 망가지면 전체의 몸놀림이 부드럽지 못하듯이 조직에 있어서도 어느 부분이 잘못되면 전체 조직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옛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했듯이 우리가 만든 조직도 어느 한부분이라도 상처를 입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을 때 항상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마음처럼 보살펴야 합니다. 자칫 개인적인 이기심이 큰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왕왕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조직은 살아있을때 만이 힘을 가질 수가 있고, 나아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조직은 싸릿대의 얽힌 얘기와 같다**

조직에 대한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항상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다투었습니다. 아버지는 늙어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두 아들이 다투며 싸우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이르기도 하고 혼내기도 했으나 두 아들의 다툼은 그치질 않았다. 결국 아버지는 임종을 앞두고 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싸릿대를 한뭄음씩 베어 오라고 하

였습니다. 싸릿대를 가져온 두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하나씩 끊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 말씀대로 싸릿대를 하나씩 잡아 꺾었습니다. 싸릿대는 잘 부러졌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싸릿대를 한묶음 잡고 꺾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한묶음의 싸릿대는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유언으로 "싸릿대가 하나씩 있을때는 쉽게 꺾어지지만, 싸릿대가 한묶음이 되면 꺾어지지가 않는다. 부디 싸릿대 처럼 하나가 되어 살아가거라"고 유언을 남기고는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결이 조직활동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합니다. 조직은 흩어지면 하나의 싸릿대처럼 꺾이고 뭉치면 한묶음의 싸릿대처럼 꺾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분열하면 패배하고 단결하면 이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뜻을 가지고 꺾이지 않으며 살아가려 해도 단결하지 않으면 이길수가 없습니다. 단결은 생명이고 분열은 곧 죽음입니다.

이렇듯 모든일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해 집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조직적인 관계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은 '조직'이란 울타리를 단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조직을 새롭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직을 잘 건설하였으면서도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이 또한 큰 문제임을 우리는 가슴깊이 느껴야겠습니다. 조직을 만들고 지키는 일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무게가 같기 때문입니다.





## 2. 조직의 필요성

조직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이말은 바꾸워 말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시작된 일이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철거반대싸움을 얘기해 봅시다. 지역에 개발문제가 돌면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볼려고 고민도 해보고 여기 저기 알아도 봅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하소연도 해보며 최대한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해 볼려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자신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임을 깨닫게 됩니다.

개발문제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이든 개인적으로 부딪치는 것은 일정한 한계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차원이 갖는 한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나 조합, 건설회사 등의 치밀한 조직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콧방귀도 안뀌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함께 공통의 문제점을 갖고 만나서 '대책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냥 모여서 무엇인가를 해보자는 막연한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대책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깨달아 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순간 순간 조직이란 구체적인 틀속으로 묶이게 되어 갑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조직을 지켜내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때부터 대책위란 조직은 단순히 어떤 문제만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안식처로서 작용하기까지 합니

다. 그래서 주민들은 함께 있음으로 해서 서로간에 마음의 위안도 받게되고 조직의 위대함도 발견하게 됩니다. 더불어 조직이란 한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조직속에 묶힌 사람들의 개별적인 역할에서 가능해 진다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 농민을 보아도 조직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잘 알수가 있습니다. 70년대만 해도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만큼 작업조건이 열악한 곳에서 혹사당하고 있고, 임금문제 또한 세계 최악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 자신도 일년내내 지었던 농사가 수매량 부족과 싼값에 팔려나가는 이유가 단지 물가폭등의 원인이나 예산팽창의 주원인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항의해본들 별소득도 없을 뿐더러 자신감도 없었고, 더우기 어떤 조직을 만들려는 생각조차 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개별적인 한풀이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노동조합이나 농민회 - 어용적이 아닌 자생적 조직 -같은 조직을 결성하여 서로간에 자신들의 처지를 애기해 봄으로써 원인을 알게되었고 대응책도 분명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별적인 항의에서 집단적인 형태로 사업주나 정부에 항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경우는 임금인상투쟁이나 작업시간 단축, 작업환경 개선 등을, 그리고 농민의 경우는 수매가 인상이나 수입 농산물 반대, 수세거부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항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70년대의 상황처럼 정부나 사업주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못하고 많은 부분 노동자, 농민의 요구을 수렴하도록 하게된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이





런 일도 노동자나 농민 개개인이 가서 항의했으면 절대 들어줄리가 없을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처지에서 고통을 받고있는 노동자는 노동자와 더불어 농민은 농민과 함께 모여 외치므로써 어렵게만 느껴졌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조직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지 일개인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조직을 만들고 조직속으로 사람을 묶어세우는 일을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지만 매우 어려운 일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막연히 모여서 울분을 토로한다고 단결이 이루어지거나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단결은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을 가진 짜임새, 즉 조직을 필요로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우리의 조직도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직은 구성원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건설합니다. 그것은 조직이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분열적 요소를 최소화 시켜 잘못되게 나아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애기해 봅시다. 처음에는 매우

의욕적이고 건전하며 올바른 입장들을 내세우며 추진되지만 얼마가 지나지 않아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직 내부에 분열적 요소가 잠식되어 있거나 활동에 대한 이해부분이 첨예할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직을 만들고 싸우는 목적은 분명 잘못된 사회, 병든 사회를 개혁하고, 나아가 몇몇 가진자들만이 누릴수 있는 천국이 아닌 모든 사람이 공평히 나누어 갖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일 겁니다. 바로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스스로 자인해서 조직을 잘못된 사회의 한 분류로 몰고간다면 그러한 조직은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옳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 - 주택이나 생존권 등 - 를 해결하는데도 심여를 기울려야겠지만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다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까지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지만 굳히 말로 설명한다는 것이 우수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는 이론적으로는 조직에 관해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 삶속에, 몸속에 배어서 살아온 것입니다. 조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첫째도 단결이고 둘째도 단결임을 다시한번 새겨봅시다. 그리고 단결된 힘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튼튼한 조직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조직을 지켜내는 노력만이 우리가 바라는 주거권, 생존권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사회, 올바른 사회를 건설하는 승리의 지름길임을 다시한번 다짐합시다.





## 3. 조직운영

어떤 일을 하기위해 사람을 모아 놓았다고 해서 곧바로 조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직은 조직구성원을 갖지 있지 않으면 안되는데 구성원의 단순한 집합이 곧 조직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든 조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다듬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조직을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내부에서 조직을 운영할 사람(임원, 통책 등)과 운영방식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조직의 사활이 걸린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성이 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사람의 선정과 조직의 원칙과 형식, 내용들이 서로간에 이야기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조직의 규율과 목적을 정확히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운영이 잘되고 못되느냐에 따라 조직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직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필요해서 조직을 만들고 일정도 그 목적이 달성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묘한 습성이 있습니다. 조직이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안고있는 문제는 항상적으로 우리곁에 있어 왔습니다. 즉 철거문제가 한순간에 발생된 일일지 모르지만 - 개인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볼때는 - 우리나라 전체를 볼때는 끊임없이 이어져온 사건이었습다. 즉 철거의 악순환입니다. 그러나 철거이전부터 '주민자치회' 같은 조직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일은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때 만이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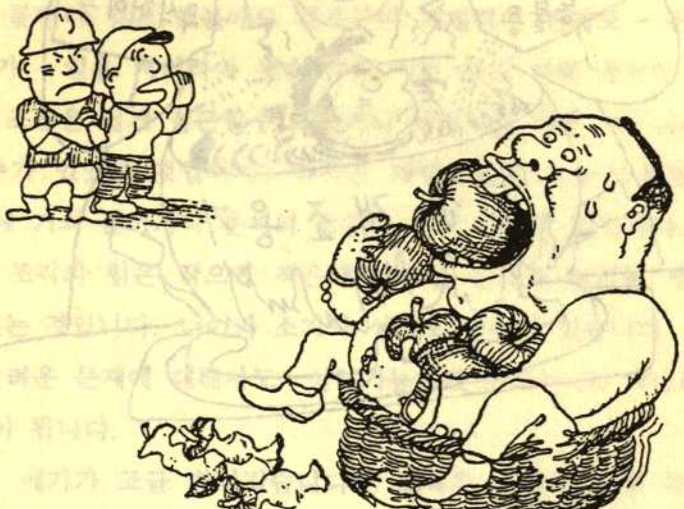
을 만들려고 듭니다. 평상시에도 우리 주변에는 철거외에 나름대로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의료보험이나 영세민 선정기준 - 우리가 사는 지역이 대부분 빈민촌이기 때문 - 상하수도, 가로등 문제 등 지역에 관련된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거의 무방비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문제점을 몰라서가 아니고 문제점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대부분이 개별적인 관계로 - 관과의 관계가 - 일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이런 일도 지역 조직이 있었다면 조금은 쉽게 접근할수 있었거나 해결책도 빠른 시간내에 찾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묻히거나 문제의 접근도 하지 못한채 끝납니다. 이렇듯 조직의 힘은 작으면 작은대로 크면 큰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소기의 성과도 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실현가능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됩니다.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조직은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야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조직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착취 - 없는자를 짓밟고 영리를 취하는 점에서 -하는 집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하는 민주적인 운영과 한번 조직 내부에서 결정난 사항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따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민주적인 운영과 조직으로의 집중, 그리고 소수는 다수의 의견에 항상 따르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다른 집단의 형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대부분 우리는 이러한 집단을 '지배집단'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모여 최대한 문제를 극소화시켜 내면서 지배할 수 있는 방안을 무엇인가를 짜내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씁니다. 이러한 지배집단은 운영 자체가 지극히 획일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모든것이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식으로 하달됩니다. 잘못된 사항이 있다해도 반박할 조건을 주지않는 것이 또한 이들의 조직운영 형태입니다. 바로 사람을 비인간화, 대상화, 로보트화시키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을 활용하여 억압과 착취 구조를 조직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돈과 권력을 최대한 휘둘러서 회유, 매수 등을 하다가 이도 저도 안되면 폭력과 공포를 동원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켜 나가는 것을 조직의 기본생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만드는 조직은 주민들의 창조성과 자주성을 살리면서 철저히 비인간화된 우리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인간화로 나가도록 노력합니다. 이런 일은 어느 누가 시켜서 되는일은 아닙니다. 우리들 하나 하나가 조직의 주인으로 참여함으로써 만이 그 어떤 목적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실정은 조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승리에 대한 확신





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말은 조직이 갖는 엄청난 힘을 믿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주민 모두는 조직이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로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갖어야 합니다. 이럴때만이 우리가 만든 조직은 승리로 한걸음씩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우리는 우리가 만든 조직을 우리 스스로 깨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조직 내부의 분열로 와해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대책위원회를 만들 당시에는 처음도 단결이요 끝도 단결이라는 결의에 찬 각오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처음 각오는 조금씩 퇴색되어 지역 내분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우리가 목적한 바를 성취하기도 전에 대부분 지역조직이 깨져 투쟁의 원동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조직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가장 크게 좌우됩니다.

조직이란 모름지기 살아있을때 만이 그 힘을 갖습니다. 이미 깨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형지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를들어 운영자체가 임원단의 전체 합의중심이 아니고 일개인의 독자적인 운영일때 임원 갈등과 지역주민의 동요가 수반되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 내분이 초기에는 지극히 사소한 문제에서 출발한 갈등이 결국 전체 지역으로 확산되어 더 큰 화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대책위의 운영은 항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갖추어야 하고 - 주민총회나 통모임 등 - 나아가 주민들의 의견을 한곳으로 결집시킬수 있는 임원회의나 통대표회의 등을 설치운영하여 의견을 모아가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결정난 사항은 주민들에게 재차 알려서 다시금 주민들의 결의를 모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방기될때 우리 조직은 엄청난 불화와 타격을 입게됩니다. 그래서 조직은 모든것이 철저한 공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내에서 항시적으로 불신이 생길 소지가 있는것이 바로 금전문제의 운영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책위에 모아진 돈에 대해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항상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항상 돈의 씀씀이에 대해 정확한 결과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소홀히 함으로써 불신을 싹트게 만듭니다. 대책위의 비용은 사용목적이 분명하여야 합니다. 불분명한 사용처는 또다른 불신을 나올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든 조직은 모든 부분이 바로 운영의 한 부분임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는 철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알의 불씨가 광야를 불태운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만든 '철거투쟁 대책위원회'가 한시적 - 대부분의 철거싸움이 일정도 지역의 성과와 더불어 마무리되기 때문에 - 인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정한 목표가 완벽하게 확보되는 날까지 조직은 유효하게 살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철거투쟁, 즉 강제철거가 끝나고 나서 임대주택이나 일정도의 보상금이 주어지게 되면 마치 우리의 문제가 모두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책위원회의 조직 자체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지역에서 임대주택이나 가이주단지를 쟁취하게 되었을 때도 그 상황에 맞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는 그렇지 못합니다. 즉 철거대책위원회가 할수있는 일은 강제철거 저지와 임대주택 쟁취, 가이주단지 조성이 주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주 단지나 임대주택이 쟁취되고 나면 조직은 필요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아직도 싸움이 끝난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볼때 정부의 확답은 완전히 믿을 수가 없는것이 우리들이 갖고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주택의 완전한 쟁취는 우리가 들어가 사는날입니다. 그래서 싸움은 끝난것이 아닙니다. 철거문제가 어느정도는 해결된 지역은 이제 새롭게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를 '임대주택 완전 쟁취위원회'나, '000 가이주단지 주민자치회'식으로 전환하여 조직을 존속시켜야 합니다. 옛말에 '한알의 불씨가 광야를 불태운다'는 속담이 있듯히 처음에는 잔디나 풀에 불이 장

붙지 않고 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하여 불길을 살려놓으면 불길은 순식간에 다른 잔디나 풀에 달라붙어 한꺼번에 광야를 불태울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조직은 이렇게 변화와 발전을 통해 우리 자신을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없는놈은 없는놈끼리 뭉쳐야 산다**

다음은 조직운영에 있어서 연대활동에 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각 지구의 주민조직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구와 지구, 지역과 지역, 전체 운동에서의 연대는 왜 필요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힘없고 가진것 없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같은 지구의 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내의 주민들을 모아서 '지구대책위원회'란 조직을 만들어 지구 중심으로 문제들을 풀어나갑니다. 그러나 지구대책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질때도 각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지구대책위원회를 만들었듯이 마찬가지로 지구만 가지고는 앞으로 닥칠 여러가지 어려움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도 없고 한계점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론 또한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한 지구의 문제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소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지역, 여러 목소리가 외칠 때 경각심을 갖게되고 정책의 전환도 모색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각 지구가 여러모로 힘이 부족하고 지구 자체도 내분이 조금씩은 있어 아무리 한목소리를 낸다해도 지배집단의 물리력을





당할수가 없습니다. 이럴때 각 지구가 지역으로 뭉쳐 한소리를 낼 때 효과는 엄청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의 지구는 소수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자체로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엄청난 공권력에 대항해서 싸울 힘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각 지구대책위의 요구사항를 정부나 구청에 가지고 간다해도 별 반응도 없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요인으로 우리는 지구대책위를 만들었듯이 지구와 지구의 연대를 통한 지역연대를 강화하여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각 지구가 조금씩은 개발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싸움의 양태도 약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권과 생존권에 관한 입장은 거의 같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함께 할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어떤 지역은 우리와 개발방식- 주택조합, 택지개발, 합동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이 다르다는 이유로 함께 하기를 꺼리는 지구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움직였을때는 아무것도 안되었듯이 - 한 예로 재개발이 공고되고서도 아무런 해택도 보지 못하고 나간 사람들이 많았음 (3,000세대 중 1,000세대가 나간 지역도 있음-돈암동의 경우) - 지구 자체로만 움직인다 해서 문제의 해결점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수많은 개발지역의 철거민들이 한목소리로 외칠때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와 지구가 각 지역위로 뭉쳐서 싸우고, 나아가 지역과 지역이 하나로 뭉쳐질때 우리는 대단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같이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 노동자, 농민 등 -과도 함께

어깨걸고 싸워 나갈때 우리는 우리가 목적한 바를 쟁취할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학생과도 함께 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들도 이땅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싸움에 정당성을 알고 있기때문에 함께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조직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어 우리들의 목표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주거연합의 역할도 이런 가운데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주거연합이 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도움을 주지않느냐고 반문할 것은 아닙니다. 주거연합은 어느 한 지역의 해결사 노릇을 하기위해 만들어진것이 아니고 지구와 지구, 지역과 지역 등을 연결지어주고, 나아가 새로운 지역에 대한 지역과 지역, 지구와 지구, 타 운동과의 연대 등을 통해 철거민들의 생존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거연합의 중요한 몫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은 그 나름대로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너무 자기 지구 중심으로만 일을 생각하게 되면 또 다시 고립되어 싸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항상 다른 지구 중심으로 양보하는 자세를 갖어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주거연합은 각 지구의 해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마치 주거연합이 해결사 노릇을 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는 지구도 있습니다만 주거연합의 하는일은 조정역할 입니다. 즉 지구와 지구, 지역과 지역의 연결고리를 맺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각 지구의 문제들를 하나로 묶어 세울 방안을 찾아나가고 지역과 지역간의 연대를 강화하여 좀더 빠른 시간안에 문제의 실마리를 찾자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지구와 지구가 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구의 대책위가 처음 만들어 질때 세대별 연대가 바로 가능했을까요 ? 아마 그렇치는 못했을 겁니다. 흩어져 있는 세대수를 어떤 한곳으로 모을 필요가 있기때문에 대책위란 조직을 만들었을 겁니다. 바로 주거연합도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싸우는 각 대책위를 함께 묶어세우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개별적 싸움은 오랜 싸움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싸울때 만이 승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해 봅시다.

1. 자신이 살아온 과정에서 조직활동을 해본적이 있다면 어떤 활동이었으며, 잘된 점과 못된 점은 무엇 무엇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2. 자신이 생각하는 조직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3. 대책위 활동중에 조직활동에 관해 느낀점은 무엇이며, 잘된 점과 못된 점을 솔직하게 나누어 봅시다.
4. 철거투쟁이 끝난 이후에도 대책위 조직과 비슷한 활동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지를 나누어 봅시다.



셋째 마당

## 품성이란 무엇인가

## 1. 조직활동은 올바른 품성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즉 주거권 확보나 생존권 보장등의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기 위한 집단적인 노력을 흔히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운동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생존권이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이며 우리와 비슷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노동자와 농민, 학생 등이 있습니다. 이들도 자신들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요구들을 운동을 통해 관철시켜 나갑니다.

즉 노동자는 각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거나, 농민은 각 지역농민회를 통해 수매가 인상등을, 학생들은 각 학교 학생회를 통해 자신들의 이해와 맞물린 요구들을 하나씩 하나씩 쟁취해 나갑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처한 상황속에서 그 나름대로 운동이란 것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좀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단위 사업장이나 지역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어 전국적인 연합체를 만들어 운동을 전개합니다. 노동자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농민은 전국농민회총연합을, 학생은 전국대학생대표자회의를 결성하여 막강한 힘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감히 정부가 손쉽게 다루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운동을 보다 더 잘해내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 대항하지만  모든 일이 생각했던 것처럼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들이 모여 만든 지부든, 각 주민들이 모여 만든 지역대책위든 간에 조직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입니다. 즉 조직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조직에 소속된 각 사람들이 갖고있는 품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운동이 바로 인간화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품성이란 사람으

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 나아가 조직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말합니다. 좋은 품성을 가질때 만이 우리는 조직을 잘 이끌 수가 있고 또한 잘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적으로 끊임없는 자기반성을 통해 자신 스스로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평소에 말과 행동에 있어서  가식과 허위는 없었는가, 혹은 가난하게 사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일부러 잘 차려 입고 다닌다던가 허풍스런 표현과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하지는 않았던가, 또한 윗사람에게 자신의 입지를 위해 아첨하지는 않았던가를 다시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거지역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분열적 요소도 바로 그릇된 품성에서부터 시작됨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바른 품성은 올바른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됩니다. 올바른 품성을 지닌 사람들이 많을때 그 조직의 전망은 밝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활동을 해나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갖추어야 할 몇가지 품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지녀야 할 품성의 유형

### 1) 솔직한 품성

솔직한 품성이란 거짓된 품성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따지기 앞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주위 사람에게 떳떳히 드러낼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즉 자신의 처지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과오에 대해 스스럼 없이 고백하고 비판받을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만, 지역의 부회장을 하던 사람이 동네주민들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갖가지 공언과 협박을 남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따르면 25평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진다'고 떠든다든가, 지역의 집회에 참석하는 주민들을 붙잡아 놓고서 '대책위가 학생들을 동원하여 놓고 싸움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래서 경찰이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등 갖가지 유언비어를 퍼트려 주민을 이간시키거나 분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방 자신이 했던 말을 번복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우리 지역은 두군데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으니 따로 대책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항시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을 이간, 분열시키는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지역에서 똥바가지를 둘러쓰고 쫓겨난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심성은 대부분이 지역 주민에 기초해서 생각을 하는것이 아니고 자신의 입지를 늘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